

북한 지하교회 교인 23명 체포... 3명 순교

가족과 친척 등에게 복음 전했을 뿐인데...

북한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지하교인 23명이 보위부에 적발돼 이들 중 3명은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지

난 5월 중순 평남 평성시 구월동에 소재한 지하교회가 적발돼 23명의 주민이 체포됐다.

이들 중 조사에서 지도급으로 판명된 3명은 사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20명은 무지컬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요덕수용소로 보내졌다. 순교한 3명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북한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척, 지인 등에게 복음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평성 뿐 아니라 신의주에서도 전도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보위부는 해당 지역에서도 수사에 나섰다. 통신원은 “집중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미신이나 종교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며 “북한 당국도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 사건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한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 남가주 교계, 신천지 피해 방지 적극 나서



(왼쪽 앞줄부터) 한선희 목사, 박종대 목사, 이정현 목사, 지용덕 목사, 박용덕 목사. ©지재일 기자

문화 이벤트로 접근, 성도 미혹해

이단 신천지에 대한 남가주 교계 기자회견이 3일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남가주 지역 신천지 피해자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지용덕 목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용덕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 미주기독교 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는 이단 신천지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남가주 교회 성도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당부했다.

최근 크리스천헤럴드 신문사는 벨플라워 지역에 있는 신천지 모임 장소 앞에서 피해자가 폭동이 피켓 시위를 벌인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LA에서 활동 중인 신천지 집단은 크리스천헤럴드 사무실로 협박성 전화를 하는 등 각 한인교회와 성도들에 피해가 속출하는 가

운데 교계 대표 기간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한 것이다. 지용덕 목사는 “신천지 등 미주 사회에 만연한 이단들의 확산에 교계가 협력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개인이 아니라 교계 전체가 기도하며 합심한다면 이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용덕 목사는 “유명 한국교회에 신천지 추수꾼이 침투, 장로들에게 담임 목사에 대한 비판, 불만을 토로하며 서로 불화하게 만들어 결국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바꾼다”며 “남가주 기독교계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목사는 “신천지 집단은 하나님의 창조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고백하는 등 가장 악한 이단”이라고 경계하며 “남가주 교계에서도 이단 대책을 위해 지금부터라고 적극 나

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지에 대해 적극 퇴치활동을 벌여온 느헤미야사역원 대표 박동욱 목사는 “신천지 등 이단이 무료 영어, 꽃꽂이, 도자기공예 등 문화 이벤트로 성도들에게 접근해 신천지 성경 공부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며 “신분이 불분명한 이들에게 절대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선희 목사는 “현재 신천지는 한국에만 7만여 명의 성도수로 3년 전 3만 5천명에 비해 두배나 성장하고 있다”며 “약 2년 전 신천지 추수꾼 400명을 LA에 보내 각 교회를 침투하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주 기독교 이단대책연구회는 8월 22-23일 LA한인침례교회에서 이단대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 213-484-2574 <지재일 기자>

탈북 고아 입양 법안 통과위한 노력 가속돼

“한미연합회는 탈북 고아 입양 법안(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0) 제정을 위한 싸움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한미연합회는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민주당 출신 메리 L. 랜드류 의원이 공동발의한 ‘탈북고아입양법안(S. 3156)’과 공화당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과 공화당 일리나 로스-레티넨 의원, 민주당 다이앤 왓슨 등이 발의한 ‘탈북고아 입양법안(H.R. 4986)’에 대한 관심을 한인 사회에 환기시켜 왔다.

이들 법안은 미 국무부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 혹은 주변 국가에 숨어 지내는 북한 아동을 미국인들이 입양할 경우, 관련 절차를 더욱 간소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30일 한미연합회가 주최한 탈북고아입양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슈나이더 국제아동재단 샘 한 이사장은 “탈북 아동 입양 법안을 위해 코스판서

가 30명 필요했으나, 현재 29명 하원의원이 모인 상태이며 다음 주 초, 한두 명 더 사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외교문제위원회 28명 회원 중 10명이 이미 법안에 동의했으며, 차후 법안 통과를 위한 청문회가 열리면 워싱턴으로 가서 청문회에서 연설을 하고, 상

한미연합회 온 오프라인 법안 통과 서명 운동 벌여

원의원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문회에서 샘 한 이사장은 청소년 시절 아서 슈나이더(Dr. Arthur Schneider)의 아들로 입양돼 미국에서 제2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됐음을 증거하며 자신만을 위해 제정된 특별 입양법이 중국 등의 국가에서 셀 수 없

는 탈북 고아들에게 입양법이 적용돼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자는 연설을 할 계획이다. 한미연합회는 미 하원과 시민들에게 탈북자들의 현실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시민들로부터 탈북 고아 입양 법안 서명 운동을 벌였으며, 한인 마켓과 교회 등에서 5일간 LA한인타운에서 약 3,000명, 워싱턴 DC에서 열린 KCC 햇불기도회에서 약 8,000여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 서명인단은 북한의 자유를 위해 7월 13일과 14일 열린 KCC(대표간사 손인식 목사)에 전달됐다.

한미연합회는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탈북 고아 입양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을 받았으며 온라인 서명은 즉각적인 편지 형태로 미 하원의원들에게 전달된다. 온라인 서명을 원하는 이들을 www.kacla.org 를 참고하면 된다.문의) 한미연합회 213-365-5999 <지재일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새시대 새비전 새목회

준비위원
김용일 목사(사기) 이상현 목사(홍보)
장윤기 목사(위원장) 김성택 목사(역삼) 김선배 목사(고문)
양인 목사(사무총장) 김현준 목사(섭외) 이유신 목사(고문)

김한욱 목사
해피데이 전도시스템
한국 새인양교회

양춘길 목사
뉴저지 필그림 교회

Dr. Patrick Keifert
루터교신학교
"We are Here Now" 저술

360° 교회성장

확산인도자

이상철 목사 개척교회 성장모델
박성만 목사 100명대 교회 넘어서기 Breaking 100 Barrier
박준걸 목사 200명대 교회 넘어서기 Breaking 200 Barrier
허봉기 목사 400명대 교회 넘어서기 Breaking 400 Barrier
고태형 목사 새목회지 성장모델

2010. 8. 30(월) - 9. 2(목)

- 장 소 : 시애틀 연합장로교회 (www.nckpcusa.org) 8506 238th Street SW Edmonds, WA 98026
- 등록비 : \$170 • 마감일 : 2010년 8월 15일
- 등록문의 : 양인목사 (562) 447-3575 / pastoryang@hotmail.com
- 주 관 :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총회

그라운드 제로 근처 결국 모스크 들어서 논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3일 뉴욕시 유적 보존위원회 허락

계획에 미국 내 이슬람 전문가들도 비판적인 견해를 표시해왔다.

이날 열린 유적보존위원회 회의의 방청석에도 '3천명을 살해한 자들을 찬미하지 말라. 모스크는 안 된다'는 팻말을 든 이 등 반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공화당 릭 라지오 후보는 모스크 건립 자금원을 조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이 일은 종교와 테러를 구분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무슬림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시의 일부이다. 이들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모스크 건축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중심이던 한 코르도바협회의 체(Cordoba Initiative)와 무슬림 발전을위한미국협회(American Society for Muslim Advancement) 등 이슬람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윤주이 기자>

결국 그라운드 제로 근처에 15층 규모의 메가 모스크가 서게 됐다. 뉴욕시가 3일 이를 허락했다. 뉴욕시 유적보존위원회는 모스크가 들어설 자리에 있는 빌딩이 역사적 보존 가치가 없다는 데 9대 0으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 1858년 준공돼 백화점 건물로 쓰인 건물의 미학적 가치가 떨어진다. 이로서 152년의 역사를 가진 건물은 철거되고 이 위에 모스크가 선다.

그라운드 제로에서 두 블록 떨어진 파크 플레이스 45-47에 모스크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올 봄부터 있어 논란이 되어왔다. 테러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의 반감을 낳고 있는 이

침례교세계연맹(BWA)의 새 리더십이 출범했다.

7월 28일부터 호놀룰루 하와이에서 제20차 세계대회를 가진 BWA는 지난 31일, 지난 해 인선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지명을 받은 존 업튼(Upton)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2001년부터 미국 버지니아침례교총연합회(VBGA) 총무를 지내고 있는

했다"며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회장에 적절한 인물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날 BWA 회원 국가들이 속한 북미 지역, 남미 지역, 유럽·중동 지역, 카리브해 지역, 아태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총 6개 지역 연맹에서 각 2명씩 총 12명의 부총회장도 선출됐다.

북미 지역에서는 캐나다의

침례교세계연맹, 새 총회장에 존 업튼 목사

2015년까지 직무 수행... 부총회장 12명도 선출

업튼 목사는 최근에는 BWA 상임위원, 분과위원으로도 활동해 왔다. 그는 영국 출신의 데이빗 코피(Coffey) 목사를 이어서 2015년까지 1억여 침례교인들을 대표하는 BWA의 총회장으로 섬기게 된다.

넬 콜람(Callam) 총무는 업튼 목사의 선출을 반기며, "하나님께서 버지니아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를 준비시켜 오

해리 가드너 목사와 미국의 윌리엄 엠스 목사, 남미 지역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다니엘 카로 목사와 멕시코의 조엘 시에라 목사, 유럽·중동지역에서는 독일의 레지나 클라스 목사와 레바논의 나빌 코스타 목사,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쿠바의 빅토르 사무엘 곤잘레스 목사와 자메이카의 버셀 테일러 목사, 아태 지역에서는 말레이시



신임 총회장에 선출된 존 업튼 목사와 드보라 업튼 사모가 전 총회장인 데이빗 코피 목사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BWA

아의 존 록 목사와 호주의 로스 클리포드 목사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라이베리아의 올루 멘제이 목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폴 음시자 목사가 부총회장으로서 업튼 총회장과 협력하게 된다.

<손현정 기자>

미국인 12%, 신앙이 제1순위... 나머지는?

당신의 믿음은 기독교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우선순위도 기독교인가? 뜬금없는 질문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인들은 이 질문에 12%만 Yes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미국의 연구조사기관인 바나그룹 리서치는 미국인의 12%만이 신앙을 삶의 1순위로 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인의 90%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75%가 기독교인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2%라는 수치는 그

게 높은 수치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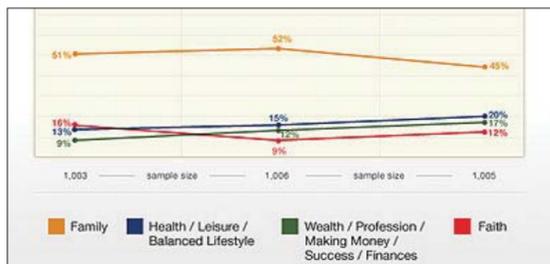
바나그룹 회장인 데이빗 키나맨 씨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신앙에 두는 우선순위는 큰 차이가 있었다"면서 "왜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신앙이 깊지 않은가 라는 문제를 볼 때, 그들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와 그들이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가의 차이가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했다.

또 바나그룹은 믿음에 우선순위를 둔 가톨릭 신자의 비율(4%)

를 차지한다고 말한 12%의 응답자들은 2008년 9%에 비하면 오른 수치지만, 2006년 16%에 비하면 오히려 내려간 수치다.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복음주의자라고 자신을 밝힌 사람들이 가장 많이(39%)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에 두고 있었으며, 가톨릭 신자들은 4%만이 믿음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답해 가장 적은 응답자율을 기록했다.

또 바나그룹은 믿음에 우선순위를 둔 가톨릭 신자의 비율(4%)



출처 바나그룹리서치

에 주목하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성인 가운데 믿음을 우선순위로 응답한 2%와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믿음을 삶의 1순위로 세운 사람은 개신교인의 5명 중 1명

(18%), 교회를 다니는 사람(교회 출석 빈도수는 미확인) 5명 중 1명(18%)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경제위기가 미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미국인 성인 1,006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조사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최고 가치관은 '가족'이다. 45%의 응답자들이 가족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 레저 활동, 균형 잡힌 라이프스타일이 20%로 두 번째이며, 물질적인 풍요, 경력, 돈 벌이, 성공 및 재정상태가 17%를 차지 그 뒤를 따랐다. 안타깝게도 가장 낮은 비율(12%)을 차지한 것은 믿음이였다.

<권나라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인: 박해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조요한 편집국장: 지재일 광고국장: 이인규
지사망: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213) 739-0403 / 팩스번호: (213) 739-0408
주소: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회사 설립, 계약 위반	파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파산, 기업 회생▶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신용 문제 상담	이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	---	---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c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이문규 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904호 822-510-5200

유니온교회 새로운 리더십 'Start!'

기독교미주성결교회를 대표하는 유니온교회의 제4대 담임 목사 취임식이 8월 1일 본 교회 당에서 성대히 열렸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담임 목사 취임식은 물론 시무권사 안수집사 취임, 명예장로 및 원로 목사 추대식까지 아울러 개최된 이날은 미주성결교 성도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거행됐다.

관리할 청지기의 직분을 인수인계했다. 유니온교회 1대, 3대 담임목회자로 헌신한 이정근 목사는 새로운 담임이 취임한 것과 동시에 담임목사로서의 모든 사역과 직분을 마무리했다.

이정근 목사는 유니온교회로부터 원로목사 추대패를 받았으며, 특별히 기독교언론협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섬긴 공로



유니온교회 담임으로 취임한 문병용 목사. ©지재일 기자

다. 또한 성도들의 교적부를 전달하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예수님의 목회 정신을 따라 사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유니온교회 종교법인 대표직(CEO)과 교회재산을 관리할 청지기의 직분을 인수인계했다. 유니온교회 1대, 3대 담임목회자로 헌신한 이정근 목사는 새로운 담임이 취임한 것과 동시에 담임목사로서의 모든 사역과 직분을 마무리했다.

이정근 목사는 유니온교회로부터 원로목사 추대패를 받았으며, 특별히 기독교언론협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섬긴 공로를 인정 기독교언론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이정근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된 후 "지난날을 돌아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이 개척교회부터 시작했던 유니온교회의 30년 사역을 잘 마감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짧은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취임식 1부 예배에서 설교한 안중기 목사(기독교미주성결교 남서부지방 회장)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신앙의 눈(믿음), 그것이 있다면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한다"며 "미주성결교회를 대표한 유니온교회의 훌륭한 역사를 2세대가 잘 이어받아서 복음의 횃불을 더욱 드높이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유니온교회는 새로운 담임목사 취임식 후 7명의 권사와, 5명의 안수집사를 세웠으며, 이들은 특별히 전임 목회자인 이정근 목사의 축복기도를 받으며 교회의 새로운 리더들이 되었다. 기독교미주성결교회를 대표하는 유니온교회의 제4대 담임목사 취임식이 8월 1일 본 교회당에서 성

문병용 담임목사 취임, 7명의 권사와 5명의 안수집사도

새로 취임한 문병용 목사는 취임사에서 "유니온교회의 청빙을 받고 기도하는 중 '주님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응답과 함께 9년 전 청빙이 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노라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다"며 "열흘 전 도착부터 매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더욱 깨닫는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10개월 동안 기도로 기다려주신 모든 성도에게 감사하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므로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문병용 목사는 전임 이정근 목사로부터 네 가지 사역을 인수인계를 받았다.

이정근 목사는 그 첫째로 유니온교회의 영구표어를 인계하면서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성도들의 교적부를 전달하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예수님의 목회 정신을 따라 사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유니온교회 종교법인 대표직(CEO)과 교회재산을

를 인정 기독교언론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기도 했다.

이정근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된 후 "지난날을 돌아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이 개척교회부터 시작했던 유니온교회의 30년 사역을 잘 마감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짧은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취임식 1부 예배에서 설교한 안중기 목사(기독교미주성결교 남서부지방 회장)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신앙의 눈(믿음), 그것이 있다면 생명을 걸고 순종해야한다"며 "미주성결교회를 대표한 유니온교회의 훌륭한 역사를 2세대가 잘 이어받아서 복음의 횃불을 더욱 드높이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유니온교회는 새로운 담임목사 취임식 후 7명의 권사와, 5명의 안수집사를 세웠으며, 이들은 특별히 전임 목회자인 이정근 목사의 축복기도를 받으며 교회의 새로운 리더들이 되었다. 기독교미주성결교회를 대표하는 유니온교회의 제4대 담임목사 취임식이 8월 1일 본 교회당에서 성

대히 열렸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담임목사 취임식은 물론 시무권사 안수집사 취임, 명예장로 및 원로목사 추대식까지 아울러 개최된 이날은 미주성결교 성도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거행됐다.

새로 취임한 문병용 목사는 취임사에서 "유니온교회의 청빙을 받고 기도하는 중 '주님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응답과 함께 9년 전 청빙이 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노라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다"며 "열흘 전 도착부터 매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더욱 깨닫는다"고 말했다.

문 목사는 "10개월 동안 기도로 기다려주신 모든 성도에게 감사하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므로 주님의 도구가 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문병용 목사는 전임 이정근 목사로부터 네 가지 사역을 인수인계를 받았다.

이정근 목사는 그 첫째로 유니온교회의 영구표어를 인계하면서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사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회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가?

김종필 목사 각지에서 모인 목회자에게 도전



2010 Harvest 세미나가 300여 목회자 부부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지재일 기자

'21세기 영적 대추수를 준비하라!' 2010 Harvest 세미나가 미주 한인 목회자 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 300여 목회자 부부가 모인 가운데 Radisson 호텔(LA Airport)에서 8월 2일~5일까지 개최됐다.

첫째 날 저녁집회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김종필 목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는 곳에 포커스를 두고 사는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 포커스를 두고 목회하는지부터 점검하게 했다.

'지금 이 시대는'이라는 제목으로 첫 강의를 시작한 김종필 목사는 '지금'이라는 히브리어 '올람'이란 말 속에 있는 깊은 의미부터 묵상했다. '지금 이 시대'는 히브리어로 '올람 하제'이면서 장차 다가올 세상은 히브리어로 '올람 하바'라고 한다. 어떤 일이 내일로 계속 이어질 경우 '올람'이라는 말은 '지금'을 말하면서 수천, 수

백 년 나아가 영원함을 말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종필 목사는 "지금 이 시대는 단순한 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 올 미래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람 하제이면서 올람 하바인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라며 강력히 도전했다.

김종필 목사는 "열 명 목회하는 사람은 백 명을, 백 명을 목회하는 사람은 천 명을 주눅 들어 한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까지 이어질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혼 구원에 힘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미 기자)



조이도 화가의 <성경책>

한국 유명 서양화 작품 전시회

린한국 유명 서양화가 작품 전시회가 LA 한인타운 아로마센터 2층에서 개최되고 있다.

전시회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에세이 '어머니'의 삽화를 그린 김점선 화백뿐 아니라 서양화가 이중섭, 이두식 등 유명 화가

들의 작품 11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B2B & G Corporation (Gallery-G, 존 고 대표) 작품 전시회 문의) 213-924-7236 (지재일 기자)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하늘 주의 권능으로 치료받는 광선 치료의 역사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
치료의 광선은 주님의 능력이며 주님의 권세이다

신유대성회

8월 15, 22, 29일 1시30분pm
영광빛복음교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 심한 내지질과 출산 후유증의 산후풍과 심한 빈혈에서 한번의 안수로 치료 받았습니다-조영주 권사
- ▶ 척추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가 되는 병에서 목사님의 안수로 치료 받았습니다-김희숙 권사
- ▶ 교통사고로 수술도 못하는 무릎 속의 파손과 무릎 통증의 고통에서 목사님의 안수로 깨끗이 치료 받았습니다-김은주 전도사
- ▶ 신생아 이형주의 뇌출혈과 심한 황달병을 치료 받았습니다 -아기엄마 이효진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지금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 강사
우대권 목사

영광 빛 복음 교회 담임
한미음 교회 담임
21세기 목회자 영성 훈련 세미나 강사
동광 금초대 기도원 원장
대한민국 현대 인물사 수록
저서-아름답고 신비한 영광 극치의 천국
의 24권

문의전화 (714)833-2568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노형건 단장, 월드비전 한 생명 살리기 주일예배 대행진

지구촌 아동 한 생명 살리기가 바로 '선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마태복음 18장 5절)'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노형건 단장(오페라 캘리포니아 선교오페라단)이 지구촌의 죽어가는 아동들을 위해 '한 생명 살리기 주일예배 대행진'을 시작했다.

월드비전 지구촌 아동 결연한 생명 살리기(Saving One Life) 주일예배에는 노형건 단장이 한 생명 살리기 사역 소개, 월드비전 동영상 상영, 기아현장 보고 및 결연 후원신청안내, 결연 후원 신청서 결단 및 작성의 시간(노형건 홍보대사의 찬양시간) 등 약15분간의 준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 지구촌 아동 한 생명 살리

가는 전도, 선교!

노형건 단장은 "지구촌 죽어가는 한 생명을 위해 결연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며 부모님들이 선교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자녀들에게 결연 후원서를 선물하기를 권장했다. 매달 \$35불을 정기적으로 한 명의 어린이를 위해 지원하면, 그 어린이에게 필요한 교육, 음식 등 지원금이 전달된다.

월드비전 코리아데스크 서부지역본부 디렉터 김철직 목사는 "미국 현지인의 경우 한인 커뮤니티보다 인구가 많지만, 인구 대비 지구촌 아동 결연 현황은 코리아 데스크에서 경이적인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며 "올해 10월 회기까지 12,000명 아동 후원서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는 4,500

여명 결연 후원서를 받은 상태이며, 노형건 단장의 주일예배 대행진과 8월 4일부터 시작되는 월드비전 창립 60주년 기념 선명회어린이합창단 공연을 통해 막바지 지구촌 아동 후원자들 찾은 계획"이라고 김 목사는 덧붙였다.

▶ 5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선교에 더욱 헌신

16년간 5,300회 이상 라디오 서울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랑여성합창단 지휘자로, 오페라 캘리포니아 선교오페라단 단장으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한 노형건 단장. "월드비전 홍보대사로서 지구촌의 어린이들을 돌보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28일 월드비전 한 생명 살리기 주일예배 대행진에 대해 설명한 (좌)노형건 단장, (우)김철직 목사. ©지재일 기자

노형건 단장의 '한 생명 살리기 주일예배 대행진' 일정

- 8월 8일(주일) 오전11시 스타튼반석장로교회
- 8월 8일(주일) 오후1시 30분 카스트로벨리에덴 장로교회
- 9월 11일(토) 오전11시 30분 다락방교회
- 9월 12일(주일) 소망선교회
- 9월 19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새소망교회
- 10월 3일(주일) 오후2시 축복선교회
- 10월 17일(주일) 오전 10시 리빙워드연합교회

했다"고 강조했다. 주일예배 대행진은 각 교회 11시 주일예배 시간에 함께 진행된다. "대예배 시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기도도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한 후 한 생명 살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노형건 단장은 "2011년 오페라 캘리포니아 소년소녀 합창단 제27회 공연은 월드비전과 함께 '한 생명 살리기'를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페라 캘리포니아 소년소녀 합창단이 한 마음을 갖고 월드비전 선명회어린이합창단의 역할을 LA에서 감당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공연에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합창곡뿐 아니라 드라마도 선보인다.

주일예배 대행진 초청을 원하는 교회는 323-574-2747 로 문의하면 된다. <지재일 기자>

남가주 2대 CBMC 연합회장 및 지회장 취임



남가주 CBMC 연합회 황선철 회장과 북미주 CBMC 총연합회 권정 회장(왼쪽에서 네번째), 윌서, OC, 샌디에고, LA 한인타운, Y-CBMC 지회장들. ©지재일 기자

2010년 남가주 CBMC 연합회 회장 및 지회장 취임식이 27일 JJ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남가주 CBMC 제2대 연합회장은 1대 이봉우 회장에 이어 황선철 회장이 취임했으며 윌서(지회장 신남규), 샌디에고(지회장 조평규), 오렌지카운티(지회장 서경원), LA 코리아타운(지회장 김영균), Y-CBMC(지회장 정하선) 신임 지회장 취임식을 함께 가졌다.

황선철 회장은 "2011년 10월 LA에서 열리는 제16차 CBMC

북미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회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기독교 실업인들이 성경적 경영을 실천해 직장에서의 복음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황 회장은 "현재 6개 남가주 CBMC 지회에서 100개 지회로 확장해 직장 선교사 훈련,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과 특히 한인 2세대들이 Y-CBMC를 통해 성경적 경영을 하는 리더들을 길러내고 1세들의 신앙을 전수하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이철 목사(가나안교회 담임)는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딤후 4:15-16)'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목사는 "미국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CBMC 멤버로서 이윤 극대화와 동시에 기독교실업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며 "각자 삶에서 전심전력을 다하면 모든 이들이 우리의 진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축사를 전한 북미주 CBMC 총연합회 권정 회장은 "남가주 지역은 한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새롭게 취임한 회장들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고 전심전력으로 믿지 않는 실업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남가주 CBMC는 2011년 10월 거듭난 일터, 변화된 리더십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16차 북미주 LA CBMC대회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재일 기자>



미션 해바라기 (좌)조성근 집사, (우)이광준 집사. ©지재일 기자

'해바라기가 주바라기로'

한국인이란 한 번쯤 들어봤을 '사랑으로'를 부른 7080가수 해바라기가 '주바라기'들이 되어 LA를 찾아왔다. 8월 1일 저녁 남가주광

버 조성근 집사는 "인생의 힘든 고비를 넘을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됐다"며 "2002년부터 복음사가 앨범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앨범을 내

많이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았다"고 강조했다.

해바라기 멤버 이광준 집사 또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만나게 된 주님을 증거 하면서 "부족한 자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됨을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정우성 목사는 "해바라기 앞에 미션이 붙어 있는데, 해바라기를 통해 미션이 되어 지는 밤, 감동의 밤이 되었다"고 전했다.

미션 해바라기는 지난 2004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에서 350회 이상의 찬양 집회와 간증을 했다.

<박상미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가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RADIO SEOUL '홈 스위트 홈'의 진행자!, 사랑을 실천하는,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노형건의 '한 생명 살리기 주일예배 대행진'

오페라 캘리포니아의 그 열정으로!
 홈 스위트 홈의 사랑과 실천으로!
 지구촌의 죽어가는 아동을 위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과 나눔, 감동의 찬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생명 살리기 주일 예배 순회 일정

- 7월 25일(주일) 오전 11:00 - 구세군나성한인교회 · 933 S. Hoover St., LA, CA 90006 · (213)480-0714
- 8월 1일(주일) 오전 10:30 - 미주성산교회 · 1111 W. Sunset Bl., LA, CA 90012 · (213)975-1111
- 8월 8일(주일) 오전 11:00 - 스타튼반석장로교회 · 4445 Quashnick Rd., Stockton CA 95212 · (209)957-9191
- 8월 8일(주일) 오후 1:30 - 카스트로벨리에덴장로교회 · 2490 Grove Way, Castro Valley, CA 94546 · (510)538-1853
- 9월 11일(토) 오전 11:30 - 다락방 교회 · 5319 N. Halifax Road Temple City, CA 92780 · (818)484-6019
- 9월 12일(주일) - 소망선교회 · 10400 Jelzah Ave, Northridge, CA 91326 · (213)507-6161
- 9월 19일(주일) 오후 12:30 - 새소망교회 · 2017 West Olympic Blvd., LA, CA 90006 · (213)422-6966
- 10월 3일(주일) 오후 2:00 - 축복선교회 · 70328 29th Palms Hwy, 29, Palms CA 92277 · (760)367-2619
- 10월 17일(주일) 오전 10:00 - 리빙워드 연합교회 · 1494 California Cir, Milpitas CA 95035 · (408)934-3600

노형건
 현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현 사랑여성합창단 지휘자
 현 AM1650 라디오서울 부국장 및 홈 스위트 홈 진행자
 현 Opera California 선교오페라단 단장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M.M.)
 (미국 버지니아 주 Voice Competition First place)
 (미국 버지니아 주 Everett college 종교음악과 교수 역임)
 (국립 합창단, 김자경 오페라단 단원 역임)
 (워싱턴 오페라 단원 역임)
 (미주예총 1994년 올해의 예술인 상 수상)
 (2005 World Cultural & Sports Foundation Multi-Cultural & Musical Award 수상)

초청 문의전화
323-574-2747
 www.rohyungkun.net

월드비전은 1950년에 한국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00여개 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 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전체 모금액 가운데 11.4%를 행정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외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투명한 재정관리와 효과적인 사업으로 지구촌 아동들을 돕고 있습니다.

[새벽강단 6] 미주성산교회 새벽예배

새 시대를 위한 그루터기들만 남는다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나이다.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경험을 믿고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믿고 사람을 절대로 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떨기나무 인생 같이 열매가 없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인생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강가에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

예레미야서 읽으며 소망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와 백성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향해서 가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치시면 안되는데...할 정도로 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혼련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3 그 중에 심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나 하시더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미주성산교회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삶' 강조

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미주성산교회(담임 방동섭 목사)의 토요일 새벽예배. 방동섭 목사는 두 가지 인생의 종류를 말했다. 하나님을 떠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 섬기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매마르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다. 성공하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매말라 없어지는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방동섭 목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거룩한 씨, 새 시대를 향한 그루터기들만 남기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문: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열매가 없으며,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참 비참합니다. 본문의 17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 수 밖에 없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합

니다. 무같이 하나님의 전전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본문 17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7장 10절에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살핀다고 하셨습니다. 더위와 가뭄같은 인생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결국 승리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17장 11절의 자고새와 같다고 합니다. 자고새의 특징은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는데 알이 부화되면 원래 어미 새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자고새는 알을 품고 부화만 시킬 뿐 자기 새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그러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허전하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길 바라십니다. 그런 교회와 사람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만 남기실까요? 거룩한 씨만 남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하나님은 정리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시대의 물고를 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할 것입니다. 우상과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씨,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만 남기실 것입니다.

〈박상미 기자〉



방동섭 목사

사랑과 희망이 꽃피는 좋은이웃선교회



좋은이웃선교회 정기예배를 드린 후에는 함께 식사하며 교제의 시간을 보낸다. ©지재일 기자

매달 1회 실로암 교회서 정기예배 및 교제 시간 가져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 사역에 관심 있는 한인들의 모임이었다. 좋은이웃선교회(오동근 지도 목사, 회장 김현구 장로는 늘 다른 사람들과 섬기기에 여념이 없다. 매달 1회 정기 모임을 가지며,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실로암교회(담임 최경섭 목사)에서 가진 정기모임을 위해서는 두나미스 미니스트리 대표 이종환 목사가 인도했으며, 예배 후 식사 교제를 나누었다.

오동근 지도목사는 "매달 장애

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만나며 또한 이사회에서 필요한 생명과도 같은 생활 정보를 나누어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관심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13년 전 중풍으로 인해 한쪽 팔과 다리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회장 김현구 장로는 늘 다른 사람들과 섬기기에 여념이 없다. 평소에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도하거나, 매주 목요일 장애인들을 초청해 티타임을 갖고 있다. 또한 양로원을 찾아가 자신보다 더 불편하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빵과 김치 등 음식을 준비해 그들을 정기적으로 섬긴다.

김현구 장로의 전도를 받아 좋은이웃선교회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전영철 집사

는 "김 장로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박과 술에 빠져 세상에서 방황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간증하기도 했다.

김현구 장로는 "장애인들을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셜 워커의 도움과 장애인들을 섬기는 봉사자들, 든든한 후원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외로운 장애 이웃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매달 정기모임은 실로암교회에서 모임 장소 및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모임은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문의) 회장 김현구 213-389-9152 (지재일 기자)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공효"

신유대성회 우대권 목사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우대권 목사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질병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빛을 발할 '신유대성회'가 8월 15일, 22일, 29일 오후 1시 30분 영광빛복음교회(담임 우대권 목사)에서 개최된다.

우대권 목사는 치유 역사에 대해 "부족한 자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공효"이라면서 "더 훌륭하고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모든 주권과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작은 시골교회를 개척하면서 오로지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대한민국 지도 모습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

고, 그것을 성화로 그리게 되면서 간증 강사로 다니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 교회의 집회를 다니다가 아픈 딸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한 성도의 요청으로 처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됐다. 뼈마디가 오그라져 누워있는 자매의 모습을 보고 '절대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우 목사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능력을 행하셨다. 오그라진 뼈마디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우대권 목사는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니.. '내가' 완벽하게 치유해줘야겠다는 교만한 생각이 들었다"며 "그 순간 다시 오그라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매를 보면서 결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처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우대권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 받지만 감사치 않으며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해야 역사는 일어나며, 복음을 삶을 살 때 진정한 감사를 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대권 목사는 "이번 세 차례의 신유집회를 예 또는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문의: 714-833-2568 (박상미 기자)



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총회 직영 신학대학



2010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 접수 및 개강일** | 접수 마감일 : 2010. 8. 13(금)
개강일 : 2010. 8. 30(월)
- 학제** | 학사(B.A.) : 128학점
교역학석사(M.Div.) : 98학점
교회음악 부전공 교역학석사(M.Div. in Church Music) : 98학점=30학점(교회음악)+68학점(일반신학과목)
ESL: 57학점(Level test 실시)
- 구비서류** | 입학원서, 담임목사 추천서, 재정보증서(이상 본교양식)
명함판 사진(2매),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증명서 영문 각 1통
- 특제** | ① 본교 졸업생들은 해외한인장로회(KPCA)의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 받을 수 있음.
② 본교에서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마친 후, 한국의 예정통합 목사고시 응시자격이 있으며, 본 교단 소속 목회자는 예정통합 목사로 이명이 가능함.
③ 각종 장학금 혜택(교수, 교역자 자녀, 부부, 형제자매, 근로, 동문회, 산동회, 여성교회, 지교회, 지정 장학금 등)
④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전임 교수 모집

- 지원자격** | -해외한인장로회(KPCA)교단 소속 목사 또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목사
-현재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목사는 아니나 채용 후 본교단 가입이 가능한 자
-구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분야 Ph.D. 소지자 중 1명
-영주권 신청에 걸려 사유가 없는 자
- 구비서류** | -이력서 -Ph.D. 학위 사본
-학위 논문 표지, 목차 및 요약(abstract)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통
-신대원(M.Div.)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통
-교수 추천서와 담임목사 추천서 각 1통
-신앙고백서(1~2페이지 분량)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
-e-mail 접수 가능(office@mijujangsin.org)

- 접수 마감일 및 접수처 : 2010년 7월30일(금) 본교사무실
- 기타 문의 : 이상명 교무처장 Tel. (562)926-1023 Ext.302

이광선 대표회장 “선교사들이 오해받지 않게 해달라”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이 취임 인사차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방문해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와 정부 정책과 교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2일 오후 한기총을 방문한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바쁘실텐데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임 대통령실장은 “그 동안 대통령실 직책을 정미하느라 오늘 첫번 회의를 할 정도로 바빴다”며 “이제야 시간을 내서 찾아뵙게 되었다”고 답하고, ‘一勞永逸(2010년 대통령실 화두로서 지금의 노고를 통해 이후

랫동안 안락을 누리려는 뜻)’이라고 쓰인 이명박 대통령의 난을 이 대표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대표회장은 “오는 8월 15일에 서울광장에서 ‘한국교회 8.15 대성회’를 갖고 한국교회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민화합을 위해 기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실질님께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임 대통령실장은 “대단히 큰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힘드시겠다”

며 “NCC까지 함께하는 만큼 의미가 있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이 대표회장은 또 리비아의 구 선교사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일은 선교사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오도되고 있으나 실상은 희생양인 것

현행 신도시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역시 교회도 종교부지를 차지하는 초대형교회만 남고 그곳에 있던 세입교회 등 중소형 교회도 모두 떠나야 하는 문제와, 규제일변도의 사학법 폐지운동 등의

은 “절실한 심정을 잘 알겠다”며 “익숙한 주제들도 있으므로 잘 살펴 보겠다”고 말하고 “국민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석한 박인주 사회통합수석도 “그런 현안에 대해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여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다”며 관심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는 한기총 서기 문원순 목사, 총무 김운태 목사, 사무총장 정연택 장로를 비롯하여 전광훈 목사(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추진위원장)와 서경석 목사(재개발문제대책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류재광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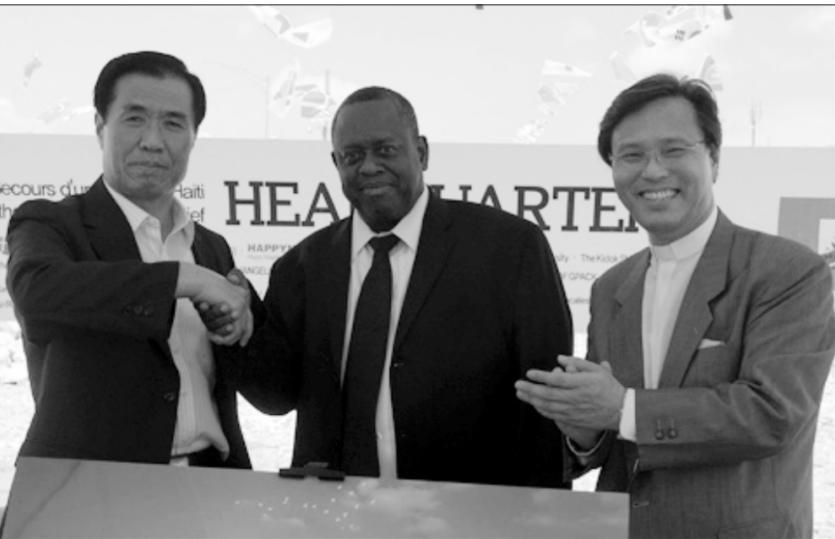
한기총 방문한 대통령실장 · 사회통합수석에 요청

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분명하게 밝히고 대책을 세워서 교회와 선교사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한기총 배석자들은 원주민의 85%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교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말미에 이 대표회장은 지극히 적은 사람들의 반대에 흔들리지 말 것과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평가받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임 대통령실장

예장 합동, 아이티에 비전센터 착공



예장 합동이 아이티 현지에 비전센터를 착공했다. 서장배 총회장이 데오다따바시장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예장 합동총회 총회간담재난구호대책위원회(위원장 김삼봉 목사)가 아이티 재건 및 현지 자립을 위해 추진 중인 ‘아이티 비전센터’ 착

공예배가 최근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파마시에서 진행됐다.

이번 착공예배는 총회장 서장배 목사, 총회서기 남태섭 목사, 해외

나우 박원영 사무총장과 데오다따바 시장과 사자인 부시장, 현지 교회 목회자 및 기업인, 굿네이버스 코리아, 한국희망봉사단, 유엔 군목

단 등이 참석했다.

박원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총회장 서장배 목사의 설교와 해외나우 전동석 국제 이사장의 환영 인사, 데오다따바 시장의 답사, 총회서기 남태섭 목사의 예장총회 및 GMS 소개, 사자인 파마 부시장, 백삼숙 선교사, 반석교회 스티븐 목사의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회간담재난구호대책위원회가 짓고 있는 아이티 비전센터는 6천여 평의 대지위에 연면적 1,300여 평, 지상 5층 규모로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까지의 학교와 병원, 교회, 슈퍼마켓, 베이커리, 레스토랑, 카페 등이 들어서며, 이와 별도로 5천여 평의 대지위에는 빵공장과 대형 벽돌공장이 건축되어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 비전센터의 건축은 국내기업인 미래탑 건설(주)이 맡았으며, 1년여의 공기로 추진 중이다.

〈이대웅 기자〉

8·15 대성회 설교자로 조용기 목사 확정

“현존하는 설교자 중 가장 적합한”



한국교회 8·15대성회 설교자가 조용기 목사(여의도 순복음교회)로 확정됐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설교자에 대해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고 현존하는 설교자 중 가장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조용기 목사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3일 준비위원회 발표에 따

르면 이외에 ‘생명과 희망’ 메시지 선포에는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김학중 목사(꿈의교회), 정성진 목사(거룩한 빛광성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등이 나선다. 이들은 각각 ‘해방에 대한 감사와 사명’, ‘회개와 사명’, ‘통일과 민족복음화의 소망’, ‘위기 극복과 미래 비전’ 등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준비위는 또 의미있는 해에 열리는 대성회를 맞아 국회의원 선교회 모임을 별도로 갖고, 애국지사 순교자 후손들을 대성회에 초청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성회는 오는 15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광장과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전국 곳곳과 세계 한인 거주지역에서 진행된다. 〈이대웅기자〉

“나의 선교, ‘십자가’ 적인가 ‘십자군’ 적인가”

선교한국 2010 대회가 시작됐다. 약 3천여명의 참가자들은 2일(월) 오후 7시 30분 안산동산교회(담임

화공영 이후 손귀연 목사(선교한국 2010대회 조직위원장)가 개회선언을 하고, 한철호 선교사(선교한국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 전체가 선교를 이야기 한다”며 선교의 주인은 바로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선교 한국을 통해 많은 선교지로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단순히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일 등 ‘가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예배 설교는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사진)가 전했다. 그는 시편 8장과 히브리서 2장을 본문으로 ‘사람, 복음, 미션’에 초점을 맞춰 설교를 전했다. 이 목사는 먼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만물의 청지기로 지음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원 목사는 현재 유행

하고 있는 세속적인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며 창조주를 우리 마음에서 몰아낸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나를 구원코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동원 목사는 “성기종 노릇 하심으로 왕 노릇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여기서 선교는 시작된다”고 말하고, “선교가 비판 받는 이유는 종 노릇에 익숙하지 않

고 제국주의적이었기에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교를 나가는 나의 태도가 ‘십자가’적인지 ‘십자군’적인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십자가가 선교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교한국 2010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예수제자운동(JDM)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이동원 목사 외에도 데이비드 자크 니링기에 목사가 성경 강해를 전했다.

〈기사제공=선교신문〉

선교한국 2010, 3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개막

김인중)에서 열린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7일(토)까지 5박 6일의 일정에 들어갔다. 첫날은 먼저 열린 문

상임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한철호 선교사는 “선교는 단 한번의 이벤트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www.seattleonnuri.com

담임목사 청빙 공고

워싱턴주 Lake Forest Park에 위치하고 있는 시애틀 온누리교회 (미국 C&MA 교단 소속)에서는 지난 16년간 사역을 담당해 오신 김제은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①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② 전임목회 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
- ③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 담임목사 지원서 (Application Form) : 양식은 온누리교회 website, www.seattleonnuri.com에서 download
- 최근 인물 사진 1장
 - 자기 소개서 - 본인의 성장 배경, 신앙 간증, 목회 비전, 지원 동기 포함. (2-4 pages)
 - 소속 교회 최근 주보 1장
 - 설교 2 회분 (CD, DVD, 또는 Website Link)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장소:
 Onnuri Church Attn: PSC Chair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1710
 Tel: 206-371-5934 (PSC Chair)
 Email: psconnuri@gmail.com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서류 제출 및 문의 가능)

제출기한: 2010년 9월 30일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친근한 모습으로 대중문화 속에 들어온 '악마'



▲ 8월부터 방송되는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의 여주인공 미호. ©SBS 8월부터 방송되는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의 여주인공 미호. ©SBS

무덤고 지치는 여름만 되면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에선 오싹오싹한 공포물이 방송되곤 한다. 그 내용은 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원혼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일삼는 괴물이나 좀비가 등장하는 슬래셔무비류였다. 하지만 요즘엔 판타지물을 타고 도덕심 강한 꽃미남 뱀파이어나 모성에 지극한 구미호 등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연출돼 공포스럽고 혐오감을 일으키기보다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오히려 인간보다 더 매력적이고 완벽한 모습이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뱀파이어를 그린 영화 '트와일라잇'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최근 개봉한 3편 '이클립스'는 국내에서도 170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다. '뱀파이어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까지 낳은 이 영화에서 뱀파이어는 보통 상상하는 무섭고도 끔찍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가 아니다. 트와일라잇 시리즈의 뱀파이어 에드워드(로버트 패틴슨 역)는 최고급 세단을 몰고다니는 의사 집안 아들로 등장하는 데다 오직 여주인공만을 사랑하는 보기드문 '일편단심 순정파'다. 인스턴트식의 사랑놀음을 즐기는 요즘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강한 도덕성까

지 갖추고 있다. 또 얼마 전 방송을 시작한 남량특집극 '구미호-여우누이뎐'에서 구미호(한은정 역)는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사람 간을 빼먹는 공포스런 존재이기보다는 따뜻한 모성이 지극한 어머니로서의 캐릭터가 훨씬 부각된다. 오히려 이 드라마에서 구미호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이 윤두수의 부인과 딸은 마치 '인간 구미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연히 만난 구미호와 사랑에 빠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도 오는 8월 방송예정이다.

하고, 더럽고,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고 매혹적이고 그럴싸하게 최대한 진리에 가까워 보이도록 위장하면서 다가온다"고 했다. 무섭고, 추한 모습의 요괴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희화화(戲化)되거나 미화된 귀신 문화일 것이다.

〈왜 '희화·미화된 귀신 문화'에 열광하는가〉

하지만 이러한 문화에 대중이 열광하는 이유를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해보는 것도

'뱀파이어 신드롬' 등 미화된 귀신문화 우려

이 드라마에서 구미호(신민아 역)는 여자의 모습을 한 요괴지만 호기심이 왕성하며 해맑고 방실방실 웃어대는 캐릭터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처럼 친근하다. 이렇듯 인간적이고 완벽한 캐릭터로 그려져 이를 동경한 나머지 옷치 못할 일도 생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뱀파이어처럼 뾰족한 송곳니를 갖기 위해 특별시술을 받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C.S.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는 추

의미이다. 허은희 교수(동대대 영화학과)는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한 시대의 문화콘텐츠는 그 사회구성원의 잠재된 의식과 욕망을 반영한다. 뱀파이어 콘텐츠의 성공은 대중이 뱀파이어에 감정을 이입시키고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과 거기에서 비롯된 근원적 외로움이 뱀파이어 신드롬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트와일라잇' 같은 경우 여주

인공은 뱀파이어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 평단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흥행한 데는 소녀팬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지만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 앞에서는 마음을 열고 감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다. 결국 무조건적인 용납을 바탕으로 한 사랑과 소통을 갈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꽃미남 뱀파이어'라는 신종 요괴를 출현시킨 셈이다.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 탐욕에 눈이 멀었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 속에서 안식을 얻지 못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판타지를 뱀파이어에 투영한다. 하지만 판타지는 판타지일 뿐이다. 그토록 바라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부여줄 뱀파이어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차마 인간이 저질렀다 믿어지지 않는 끔찍한 범죄소식에 "사람이 요괴보다 더 무섭다"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떠오르는, 점점 더 강박해져가는 인심을 느끼는 요즘이다. 심자기를 지는 죽음도 불사할만큼, 그 누구보다 인류를 용납하시고 사랑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시는데, 뜬금없는 뱀파이어가 환말인지.....

번지수가 들려도 한참 틀렸다. (이미경 기자)

청소부서 시장까지... 미국 세리토스 조재길 시장 방한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상임대표 김영진 의원이 조재길 시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조 시장, 김 의원, 강성종 민주당 의원,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사장 © 김진영 기자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상임대표 김영진 의원)는 2일 오전 서울 국회국빈식당에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Cerritos)시 시장으로 선출된 조재길(조셉 조) 시장을 초청, 환영회 및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2007년 세 차례 대선 끝에 한인으로는 처음 세리토스시 의원에 당선된 그는 지난 3월 시장에 취임했다. 시장은 시의원들이 순환제로 돌아가며 맡고 있고 임기는 1년이다.

충북 단양 출신인 그는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와 공군 장교로 복무했고, 이후 보성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지난 197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유학을 떠나 환경미화원과 주유소 종업원 등을 시작으로 이민생활을 시작한 그는 1976년 LA 카운티 내에 있는 세리토스시로 이주했다.

그는 LA카운티 공무원으로 들어가 2년 6개월 만에 매니저가 됐지만 이민족으로서의 한계를 깨달은 후 사직하고 부동산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부터 재미동포 사회의 주류정치 참여 운동을 펼치면서 직접 시의원에게 도전, 두 차례의 고배 끝에 당선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진 의원은 "조 시장님은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에서 한인 최초로 시장이 되셨다"며 "그는 과거 한국의 독재정권에 맞서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신문 '코리아 스트리트 저널'을 발행해 한국의 비민주적 사건들을 세계에 알린 투사였다"고 그를 소개했다.

조 시장은 "지난 2003년 시의원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랐다. 나 역시 무모하리라 생각했다. 30여년을 미국에 있었지만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살았다"며 "세리토스시는 다른 어떤 시보다 한국인 비율이 높다. 무려 80%를 넘는다. 그럼에도 단 한 번도 시의원과 시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시장 취임 후 세리토스시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 40명을 한국 새이덴 교회로 보내 한국의 발전상을 둘러보고 한국전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기도 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시장 취임 후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세리토스시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날 선포식을 갖기도 했다.

조 시장은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이 전쟁을 끝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정치인으로서 한국전쟁을 끝내는데 기여하고 싶다"며 "하나님의 평화가 미국과 한국, 특별히 한국전쟁으로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아동 성범죄 4년 만에 69% 증가... 범행 당시 음주율 37%

연이은 아동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지난 2005년 이후 아동 성범죄가 계속 증가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 비율은 아동 인구 10만명당 지난 2005년 10.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4년만에

69%가 증가하면서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10만명당 57.7건에서 59.4건으로 소폭 증가(2.9%)하는 데 그쳤고, 일본은 29.2%, 독일은 9.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2005년 785건에서 해마다 961건(2006년), 1081건(2007년), 1194건(2008년)으로 증가했다.

청소년 성범죄는 더 심각하다.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의 전체 인구 10만명당 발생 비율은 2008년 기준 8.6%로, 같은 기간 미국(6.2%)과 영국(5.1%), 독일(1.0%)과 일본(2.7%)을 압도한다.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청소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도 2008년 79.4건으로 영국(140.7건)과 미국(88.0건) 다음으로 많다. 지난 4년간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한국과 미국만 증가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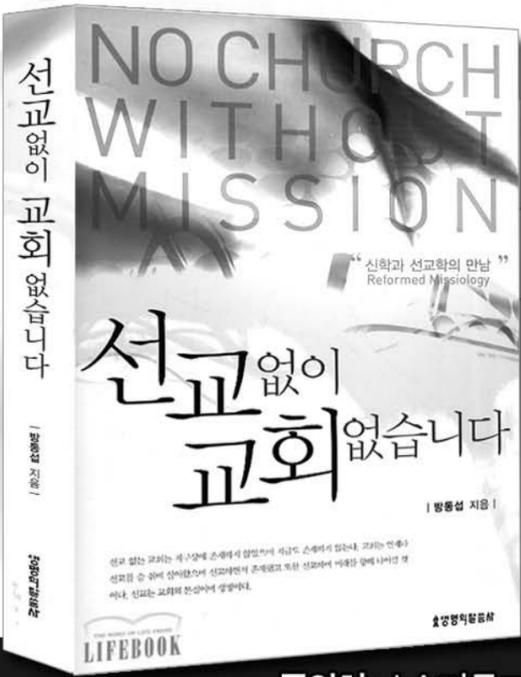
이같은 수치는 여성가족부가 최

근 발표한 '국내의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 보호체계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아동 인구대비 성폭력범죄 발생 비율은 독일·영국·미국·한국·일본 순이었다. 가해지는 각국에서 대부분 남자로 나타났고,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경우는 독일 8.2%, 미국 7.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7.1%에 달해 음주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대용 기자〉

지난 1700년 동안 교회가 잘못 사용한 선교의 개념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사도 비율의 선교의 원형을 회복하여 교회가 참으로 가이할 진정한 선교의 길을 제시한 혁명적인 저서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가 함께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왜 이 책이 중요한가?

- "이 책은 강추가 아니라 강강추를 하고 싶은 책이다." -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대표)
- "선교의 종교개혁적 저작이라고 불려서 지나침이 없다." - 유관지 박사(북한교회연구원(NCRC) 원장)
- "선교의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책은 지금까지 한국 신학계에 없었다." - 김성욱 박사(총신대 선교대학원 교수)
- "선교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책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책이다." - 김학유 박사(합동신학대학원 교수)
- "21세기 신학계에 가장 의미있는 저서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신경규 박사(고신대학교 교수)
- "누구나 선교를 말하려면 이 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김홍만 박사(국제신학대학원 교수)
-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지고 가서 매년 1번씩 읽어야 할 책이다." - 오준문 선교사(감보다이 선교사)
-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는 길을 뒤는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제공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 이길소 선교사(Global Vision Foundation 대표)
-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왜 모든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게 되었다." - 신종철 선교사(GMC 지구촌선교공동체 대표)

● 구입처: LA기독교서점, 미주성산교회 T.213) 975-1111, E-mail: dongsubbang@gmail.com

방동섭 목사의 화제의 신간!

포럼- 목회의 신학의 접합점은 어디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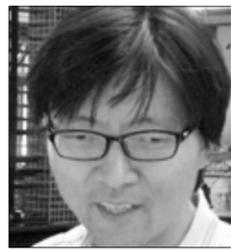
이민교회에 신학 없다! 목회자들이 만들어야

▶ 편집자 주 / 본지는 지난 4월부터 6월에 걸쳐 총 10명의 신학 전공 유학생들을 만나 <목회적 영성과 신학적 지성이 만나는 그곳에서>라는 시리즈 인터뷰를 통해 이민교회 목회와 신학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목회적 영성과 신학적 지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모색하고자 했으며 또 양자 간에 어떤 점에

있어서 대화가 부족하며 증진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번 시리즈 인터뷰의 가장 주요점은 역시 신학교에서 신학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에서 목회훈련을 받고 있는 이들을 인터뷰 해 신학과 목회 두 가지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인터뷰 기간 가운데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많은

독자들께서 매우 긍정적인 격려와 함께 조언을 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 이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와의 의견 교환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신 분들이 많았기에 본지는 지난 7월 23일 나일스의 한 식당에서 "목회와 신학이 만나는 미래 이민목회를 말한다" 는 주제로 4시간에

걸쳐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포럼을 위해 많은 목사님들께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것과 특히 김광태 목사님께서 신학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식사를 대접해 주신 것에 감사함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지는 포럼의 내용을 3차례에 걸쳐 요약, 정리해 보도합니다.



신동수 목사



서창권 목사



김광태 목사

때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이민교회의 신학 부재에 대해 바른 신학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변영신학, 성공주의에 물든 설교와 목회가 이 시대의 문제다. 그러나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목회자의 헌신 결여, 이민 목회에 대한 목회자들의 이해 부족 등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신 목사님의 의견 가운데 성경, 전통, 공동체라는 과정은 옳은 말이나 이것이 상황윤리에 빠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함께 제기해 본다.

저는 신학하는 분들에게 "바른 신학을 확산시키기 위해 각 교단 교파별로 가진 넓은 신학적 스펙트럼을 통괄하는 합의점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 시대는 복음주의가 대세라는 점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교단이 속한 이 복음주의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정의조차 아직 내러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학자들이 복음주의의 교회들을 위한 교본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마치 종교개혁 시대에 기독교 강요 한권이든 모든 목회자들이 교단을 초월해 목회의 문제를 해결 받았듯이 말이다.

▶ 신동수 목사: 어거스틴이나 칼빈 등 일생의 역작을 남긴 신학자들은 모두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책을 저술한 목회자들이었다. 저는 이민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생의 역작을 하나씩 남겨 주시면 이것이 후세에 교본이 될 수 있고 이민신학을 정립하는 기초 사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김준형 기자)

주제: 목회와 신학이 만나는 미래 이민목회를 말한다
진행자: 백영민 목사(글렌브룩교회, 케렛신학교 조직신학 Ph.D)
발제자1: 김진양 목사(시카고 루터관신학교 구약학 Ph.D, 과정)
발제자2: 신동수 목사(헛튼대학교 조직신학 Ph.D, 과정)
코멘트1: 서창권 목사(시카고 한인교회, 비블리컬신학교 신약학 MA.)
코멘트2: 김광태 목사(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웨슬리안신학교 D.Min, 과정)

<제2 발제와 코멘트>

▶ 신동수 목사: 목회자들에게 신학이 부족하다는 진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대한 불신은 목회자들의 신학 부재 현상, 신학 없는 목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브루스 윌키에 의하면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행동하는 방식"이기에 신학은 신학교의 대학자부터 시골의 이름 없는 촌부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읽으며 주의 뜻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신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금의 목회자들에

게 신학이 없다는 비판은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목회자들이 왜 신학 부재의 목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받는가? 그것은 철저한 신학적 성찰이 부재하다는 말이다. 우리는 종교개혁적 신학적 전통, 고백, 통찰에 기초하지 않고 현실적인 조건이나 자신의 꿈, 외적 비전에 근거해 목회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철저한 신학의 세례를 받은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신학은 신학교나 책에만 있는 탁상공론이 아니다. 신학은 교회와 목회의 현장에 뿌리박은 실체이며 목회의 도구다. 어거스틴,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펄전, 존 파이퍼 등의 목회자들은 목회의 현장에서 신학을 구성하고 그 신학을 목회에 반영한 대신학자요, 동시에 목회자들이었다.

결국 교회사 속에서 나타난 신학의 문제는 그것이 어떤 신학을 하는가에 있지 않고 그것이 바른 신학(orthodox)인가, 나쁜 신학(heterodox)의 문제였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은 성경과, 성경 해석의 전통, 공동체라는 점에서 신학적 목회를 해야 한다. 성경 그 자체가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교회사 가운데 나타난 전통의 맥락 안

에서 성경을 바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경과 바른 해석의 전통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상황 안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목회자가 목회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바로 알고, 즉 바른 신학을 갖고 그것을 목회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신학적 목회의 과정을 정리한다면, 목회자는 그 어떠한 목회적 판단도, 자의적이거나, 편의에 따르지 않고, 성경의 충실한 규범을 따라, 내가 속한 전통의 해석의 틀 가운데 반성하고, 현재 나의 공동체의 실제적 상황을 고려한 총체적인 신학적 성찰을 통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한인교회의 경우, 이 3가지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성경적으로 철저하지 않고, 해석도 부적절한데 이런 판단이 공동체에 적용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신학적 목회에 있어서 철저한 신학적 통찰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목회적 판단의 길고도 힘든 여정을 철저히 따라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어떤 사안이든지 일관된 신학적 성찰을 거처라! 목회 현장이 최고의 신학교이다. 둘째, 신학적 통찰을 도와 줄 책이나, 멘토, 혹은 모임을 만들

어서 끊임없이 배우라. 셋째, 이러한 신학적 목회들을 책으로 쓰라! 그 적실성과 적법성을 오는 세대의 교회에게 증거하고 알리라"라고 목회자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 김광태 목사: 모든 사람이 신학자라는 말은 참 감사하고 옳은 말이다. 그러나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잡아 줄 이론을 정립하려면 한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론화되는 과정의 보편성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자기이해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일으키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런 면에서 교회들이 시대에 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필요하며 또 그것을 신학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신학이 생기는 현상은 교회론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 바뀌었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대로 성경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미 정립된 교회론을 자신의 목회에 적용하는 것이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든 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성경의 역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은 우리 이민교회가 과연 성경에 의존해 제대로 지도를 받

으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신동수 목사님의 말처럼 교회가 성경, 전통,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신학적 성찰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최우선의 태도이며 동시에 신학적 목회를 위한 기초이다. 나는 여기에 더해 말씀과 삶에 성령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첨가하고 싶다.

▶ 서창권 목사: 신 목사님의 발제에 100% 동의한다. 목회자들이 지적받는 '신학 부재'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다. 저는 목회자들에게 신학이 없다는 말, 특히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신학 없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말이 '이민교회를 위한 신학'의 부재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 목사님이 "무너져 가는 교회의 문제는 신학 없는 목회의 열매"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과연 정확한 표현인지는 되묻고 싶다.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인데 그것이 과연 신학의 문제인가? 아니면 목회자 혹은 평신도 성격 문제 때문인가? 나는 교회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신학 부재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죄성



김예본 양이 바이올린에 음악 이상의 메시지를 담은 연주를 선사했다.

세탁기를 좋아하는 바이올린 연주자

선교사 자녀 김예본 양, 나무교회에서 연주

"저는 세탁기를 참 좋아해서요. 어디 가도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면 그렇게 반갑고....."

결국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대학생이면 좋아할 것도 많고 좋아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녀는

세탁기를 좋아한다. 가전제품 전문 매장에 가도 친구들이 좋아하는 랩탑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셀폰을 보러 가기보다 세탁기를 보러 간다. 세탁기 소리에 아버지, 어머니의 냄새가 스며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북텍사스주립대에서 바이올린 전공으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는 평신도로서 현재 중국 위구르 선교사다. 그녀의 부모가 소명을 받아 중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그녀가 주말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 올 때면 손에 가득히 들고 간 빨래를 아버지가 직접 세탁해 주셨다. 그녀는 아버지가 해주는 세탁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가

선교지로 떠난 이후 외로울 뿐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하는 위구르에 최근 유행 사태가 발생하고 통신과 연락이 두절됐을 때는 온갖 걱정과 두려움에까지 시달려야 했다. 학비도 스스로 벌어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 현재 졸업을 앞두고 퀸즈칼리지 음대 대학원에 합격했지만 학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입학 뒤로 미룬 상황이다. 시카고나무교회에 김예본 양을

7월 29일 서프라이징 콘서트의 게스트로 초청했다. 김 양의 연주를 함께 나누면서 그녀를 격려하고 콘서트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전달하려는 취지였다. 경쾌한 찬양으로 시작된 콘서트 중 김정환 담임목사가 김 양의 독주 시간을 소개하며 그녀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녀는 결국 세탁기 소리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김준형 기자)

여드름 고민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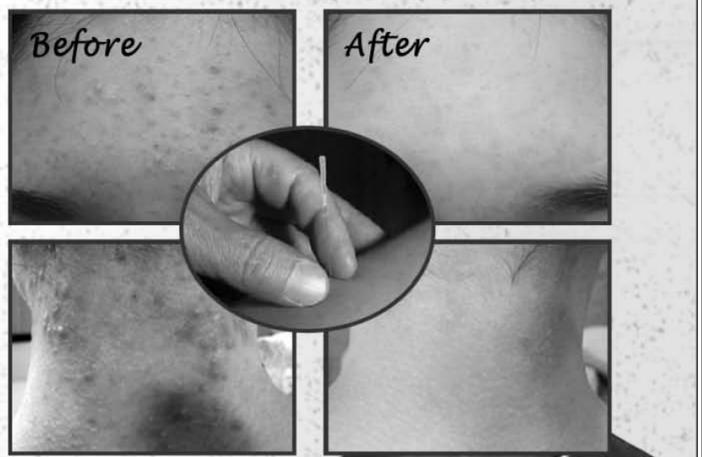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의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T.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울 목사
 주일예배 오전 9:5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 (213) 550-73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영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성경공부: (화)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수) 오전 10:30
 금요일 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중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나리교회
 담임: 박종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동양선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4부예배 오전 12:15
 2부예배 오전 8:30 5부예배 오후 2:30
 3부예배 오전 10:15 E.M 오후 12: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 www.omi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EM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노래예배 매일 오전 7:00(다문터문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스터디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일) 오전 6:00
 2부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경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쉽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성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시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준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90005
 T. (213) 249-9191 / F. (213) 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요일)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 분당 금요일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헤브론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1:4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 (323) 735-8677 / F. (323) 735-960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화-토)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장석진 목사 미주한기총회장 취임예배



미기총으로부터 취임패를 받은 장석진 목사가 초대 회장인 박희소 목사와 함께 했다.

“분골쇄신 봉사하며 섬기겠다”

장석진 목사가 미주한인 기독교총연합회 제13대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5월 23, 24일 뉴욕성결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된 장석진 목사는 8월 2일 오후 6시 대동연회장에서 취임예배를 가졌다. 미주한인 기독교총연합회(이하 미기총)는 1997년 5월 30일 시카고에서 창립했다. 한인과 흑인 사이 갈등이 심했던 1990년, 브루클린 한인 청교소에서 한국인 집원과 흑인 여성 손님 사이에 1불을 놓고 충돌이 생겼다. 이후 흑인들은 한인 청교성 불매 운동을 시작했고 이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됐다. 당시 교협 회장이었던 장석진 목사는 불매 운동

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김원삼 목사를 만나 한·흑 갈등을 해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1997년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를 창설했다. 장석진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은 미기총의 약력을 소개하며 “연합 사업에 앞장서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 분골쇄신할 것”이라고 다짐을 말했다.

1부 예배에서는 신현택 목사(뉴욕 교협 회장)가 ‘하나님의 은혜(엡 2:1-10)’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에는 뉴욕, 뉴저지 목회자들과 뉴욕성결교회 성도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 지용덕 목사는 축전을 보내왔으며 이 외 필라, 애틀랜타, 아리조나, 뉴저지, 뉴욕 교회협의회에서 화환을 보내왔다.

〈윤주이 기자〉

GLI 글로벌 기독교 지도자 리더십과정 워싱턴에서 개설

금년 가을학기부터 글로벌리더십연구원(GLI : 명예원장 정근모 박사, 원장 제임스송 박사) 워싱턴기독교지도자 훈련과정이 제1기생을 모집한다.

특별히 고유경 박사(GLI 부원장)는 “워싱턴 DC 근교에 500여개 한인교회들이 있고 교회마다 집사, 권사, 장로를 세워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지만, 교회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성경적인 교회관을 잘 알지 못하여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한인인민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아 오기도 했다”며 “따라서 교회 직분자들로

여금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교회 이해와 신앙수준향상, 청지기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워싱턴지역 기독교 지도자들의 협동과 네트워크를 통해 교파를 초월하여 개교회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협력하도록 하여, 세계선교에 한인인민교회들이 더욱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를 도우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워싱턴지역의 기독교 지도자 리더십 과정에 많은 평신도 리더들이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개교회의 홍보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요한 기자〉

한인교회 교단 업무가 젊어진다

한인 교회 교단이 젊어진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교단 총회 사역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각 교단이 지닌 정신은 지켜가면서도 업무와 행정은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총회가 끝난 후 대부분의 교단들이 노회장 또는 지방회장 회의, 간담회를 마치고 지역 교회들이 총회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듣고, 교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각 지역 소식을 나누고자 웹사이트를 재정비하고 있다.

■ KAPC ■
지난 5월 총회를 끝내고 6월 말 교단장과 총회 임원들이 연석회의를 가졌다. 총회장 문성록 목사

는 이 자리를 통해 노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총회 서식을 통일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의사소통의 장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다. 한편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도 탈바꿈한다. 회의만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것에서 벗어나 교제와 집회 시간을 마련해 목회자들이 만남을 갖고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KPCA ■
KPCA는 노회의 비중을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총회에서 일괄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노회로 전달,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의 의견을 존중, 총회에서 수렴하고 있다. 교단 업무에도 지방자치화

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상회비 비중도 노회에 보다 많이 책정했다. 교회가 내야 하는 상회비 1.5% 중 1%는 노회에, 0.5%가 총회에 전달되고 있다.

■ 미침례교한인총회 ■
미남침례교한인총회는 23일 뉴욕에서 지방회장 간담회를 가졌다. 공식적으로 처음 있는 간담회였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열린 자세로 각 지방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는 것이다. 류복현 목사는 “각 지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분별 수용해 총회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 연합감리교회 ■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는 웹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는데 나섰다. 한인 목회자들을 위한 웹사이트는 이전보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소식들을 싣고 있다. 총회와 교회 소식을 담은 뉴스, 목회이야기, 신앙 간증, 비전문가를 위한 정보, 성직자들을 위한 설교 아이디어, 목회자 블로그, 교단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월간 뉴스레터와 격월간 매거진을 제공한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한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 한인총회, 한인목회강화협의회, 한인여선교회, 한인여교역자회, 통일위원회, 타인종목회 등 연합감리교회 총회 전체 웹사이트에 포함되어 분류별로 찾기 어려웠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배치했다.

〈윤주이 기자〉

무더위보다 뜨거웠던 KPM의 영혼 사랑

유난히 더웠던 7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고통 속에서 도움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이들을 향한 KPM(Kingdom Pioneer Missions, 상임 이사 최휘웅 장로)의 사랑은 이보다 더 뜨거웠다.

KPM은 7월 4일부터 11일까지 온두라스로, 12일부터 18일까지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KPM은 설립 2개월 후 의료진 168명을 따로 모아 의료 선교팀을 발족시키고 단기 선교에 의료 선교팀을 파송하는 등 의료를 통한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단기 선교는 교회와 단체, 교단과 함께 연합으로 진행됐다.

〈온두라스 단기선교〉
일주일 간의 단기선교는 세계누가선교회, 팰리세이드교회 안경 사역팀, 청소년들이 함께 했다. 온두라스 까스파노에는 ‘누가 앤드류 클리닉’이 있다. 클리닉은 2000년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설립한 열 까스파노 크리스천 스쿨의 어린이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누가선교회(회장 정수



KPM의 2010 여름 단기 선교 현장 ©KPM

영)가 주축이 돼 세운 병원이다.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1층에는 진료실이, 2층에는 13개 방과 주방이 있어 선교팀이 머물며 의료 선교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올해의 세계누가선교회 회원

는 PCUSA 동부한미노회와 함께 떠났다. 고관석(내과), 남후남(내과), 박홍식(통증과), 이상미(약사), 조명희(간호사), 최영숙(간호사), 이정무(한의사), 박정하(한의사), 명광하(신경방사선), 조광호(행정), 이상원(행정)등 11명의 의

부한미노회 선교부는 병원 운영을 돕기로 했다. 이에 양춘길 목사(동부한미노회 선교부장)와 명광하 팀장은 한맥 우정 병원 원장과 멕시코 정부 관계자를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의사들과 동부한미노회 목회자, 유스 그룹은 이사말 근방 8개 마을 중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을 다니며 진료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의사들은 총 960여명의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양춘길 목사 등은 현지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명광하 팀장은 “이번 선교는 의사가 되길 지망하는 유스 그룹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며 “환자를 치료하는 동안 이들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스페니시 통역과 약품을 나누어 주는 등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들도 의료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 비전을 새롭게 했다.”고 전했다.

〈윤주이 기자〉

현지 병원, 선교사와 협력 선교...팰리세이드교회, PCUSA 동부한미노회와 연합팀 꾸려 다녀와

들과 KPM의 연합 선교팀의 의사 수는 총 11명. 이들은 탈장, 복강경 담낭 수술, 피부 이식 시술, 가슴 축소 수술, 산부인과 시술, 언청이 시술을 펼쳤다. 의료 선교가 진행되는 동안 유스 그룹은 학교를 찾아 VBS를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멕시코 단기선교〉
멕시코 유카탄 반도 단기 선교

사들이 사역했다. 유카탄 반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원성우 선교사와 사역을 함께 진행했다.

유카탄 메리다 지역에는 한맥 우정 병원(Friendship Hospital for Korea-Mexico)이 있다. 2005년 한국 정부가 한국인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맞이해 세운 병원이다. 현재는 운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KPM과 PCUSA 동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 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 10년동안 하다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처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쁘신 시간들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7일 오전 9시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8일 오전10시~11시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며 상금도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8월 16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준비위 민찬식 목사 “30여개국 한인 선교사 참가할 것”

북가주선교대회 韓.中.美 연합 대규모 집회로

2010 북가주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민찬식 목사(북가주선교대회 준비위원회 총무, 살롬교회 담임)를 만나 인터뷰했다. 민찬식 목사는 지금까지 집계로 이번 선교대회에 해외의 30개국에서 한인 선교사가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교사들이 많이 오시니까, 각 선교대회 프로그램에 선교사님들이 선교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넣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선교사 숙박식사와 행사이동에 관련된 교회들의 협력이 중요해졌다.

이에 대해 민찬식 목사는 “각 교회에서 일단 모시기를 원하는 선교사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선교사와 연결된 각 한인교회는 선교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여기 머무는 동안 한 사람당 500불의 호텔숙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참가인원으로는 총 15000불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선교사와 더 연결되기 위해 10개 교회가 더 필요합니다.”

“선교대회 마지막 날이 끝난 월요일에는 선교사님들에게 샌프란시스코 관광과 함께 피터 김 선교사, 김정은 치과과사, 박종렬 치과, 많은 한의사들이 무료로 선교사가

족의 치료와 검사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한인교회, 중국교회, 미국교회, LA 지역 각 대형교회 목회자.. 각 지역 집회 날 사회자 맡아, 2012 선교대회는 3개 교회 연합으로 개최 예정

민찬식 목사는 이번 선교대회는 지난번보다 더 큰 규모로 짜임새 있게 강사진이 준비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 삼미그룹 회장이던 김현철 선교사, 10/40을 제안한 루이스부시, 짐 엘리엇 선교사의 딸인 Valerie Elliot 선교사 등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흥미롭고 들을 만한 강의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선교대회 규모를 더해서 북가주 한인교회, 중국교회, 미국교회, LA지역에서 온 각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각 선교대회 지역강의 날 사회를 맡게 했습니다. 북가주에서 가장 큰 중국교회인 River of Life Christian Center에서 Liu Tong 목사가 참석하고 대형미국교회인 주빌리크리스천센터(Jubilee Christian Center)에서 Dick Bernal 목사가 참석합니다.”

이번 선교대회 지역집회 사회자는 26일 손원배 목사(임마누엘장로교회), 27일 Liu Tong 목사(River of



Life Christian Center), 28일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 29일 Dick Bernal 목사(Jubilee Christian Center)이다.

미국교회인 Jubilee Christian Center의 경우, 현재 한국인 김용준 목사가 Dick Bernal 목사 밑에서 교회행정을 맡고 있어, 이번 선교대회가 수월하게 소개됐다. 중국대형교

회 River of Life Christian Center는 이번 선교대회 강사인 토마스 왕 목사를 통해 소개됐다.

민찬식 목사는 “River of Life Christian Center 중국인 교회는 성도수가 3, 4000명인원인데 선교에 관심이 많아 이번에 한국교회와 협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임형진 기자)

기독교 쇠퇴 막으려면 세속적 혼합주의 배격해야

평안교회 김철수 선교사 초청 말씀집회 개최



김철수 선교사 초청 평안교회 말씀 집회에는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며 성황을 이뤘다.

지난 30일 부터 진행된 평안교회(담임 강성림 목사) 말씀집회에서 김철수 선교사는 ‘복음의 능력’이란 주제로 6번에 걸쳐 로마서 강해 시간을 가졌다.

김 선교사는 집회 동안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회복을 통해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넓게 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기독교 순수성 회복을 위해 사며니즘적 혼합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선교사는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과 같다”며 “주님과 인격적 동행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될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했다.

이어서 그는 “교회의 존재 의미는 다른 무엇이 아닌 복음이어야 한다”며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흔적이 살아있는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선교사는 기독교 쇠퇴의 원인으로 무속적 사며니즘을 꼽았다. 그는 “교회내 ‘하나님

의 명령을 수행했으니 복을 받아야 하고 고통을 없애야 한다’와 같은 사며니즘을 배격해야 한다”며 “그것은 자신이 주인된 상황을 이뤘다. 종교적 열심”이라고 일축했다. 김 선교사는 기독교 본질 회복을 위해 세속적 물질관과 복음이 혼합되는 것을 막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을 신봉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선교사는 1989년부터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에서 회교권 교회 개척과 탄자니아에서 이슬람 현상 연구 및 신학교 사역을 해왔다. 풀러선교대학원에서 이슬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 선교사는 2001년부터 케냐 나이로비의 네그스트 대학에서 선교학과 이슬람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매년 여름 풀러 신학교에서 문화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북가주연합중보기도회, 임마누엘장로교회서 개최



북가주중보연합기도회가 2일 임마누엘장로교회(손원배 목사)에서 열렸다.

북가주중보연합기도회가 2일 임마누엘장로교회(손원배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권영국 목사(새누리선교교회) 기도모임을 인도하며 북한을 위해, 북가주선교대회와 인터콥 행사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2세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북가주연합중보기도회는

북가주 목회자, 북가주 선교단체 회원, 일반 교인 중 북가주를 위해 중보기도하기 원하며 기도사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 기도회는 뉴라이프교회(위성교 목사)에서 시작됐으며 이제는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매달 첫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다.

(임형진 기자)

부흥하는 교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시애틀 와그너 사역 연구원(학장 장동희 목사)은 지난30일부터 양일간 뉴질랜드 DTS 간사인 케이스 와그너를 초청해 특별집회를 개최했다. 웨드필웨이 소재 아버지의 집에서 개최된 이번 집회에서 케이스 와그너는 아버지의 사랑을 주제로 집회를 인도했다.

전세계를 돌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강연하는 케이스는 “오늘날의 교회에는 너무나 좋은 가르침이 많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전하지 않고 머리에만 남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교회는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아버지의 사랑

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된다”며 “부흥하는 교회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성도들도 사랑을 확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

WLI 뉴질랜드 DTS 간사 케이스 와그너 초청 집회 열어

다”고 덧붙였다.케이스는 강연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꼽았다. 그는 “혹자는 기도와 금식,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도함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앞서 치유하길 원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많은 거부반응을 나타내지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쉽게 마음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치유하고자 하는지 알려주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

지를 알 수 있는 길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케이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에 있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함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함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통로”라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역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하나님은 오늘 날도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며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고 끊임없는 사랑하심은 배푸시는 아버지이심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고승희 칼럼



고승희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무리들 앞에서 이 사람(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며 손을 씻었던 빌라도. 그러

나 빌라도는 그의 생각대로 그 피 값에 대하여 무죄하지 않았다. 수많은 세대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았다. 빌라도의 아내는 저울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하며 사람을 보내어 부탁했다. 빌라도는 마지막 판결하는

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떠맡지 않아도 되는 죄의 책임을 스스로 떠맡으셨다. 빌라도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떠맡지 않은 사람의 대표이다. 어느 국가든 어느

른다. 고고하게 도도하게 진흙탕 싸움을 싸우는 자를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자리는 빌라도의 자리임에 분명하다. 허물과 부족, 갈등과 다툼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지고자 했던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그리고 예수님도 복된 인생이 되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 책임을 지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빌라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맡겨두신(가정)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서 손을 씻으며 무죄하다고 자신을 위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역사의 평가는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

고난을 받았다고 암송한다. 역사의 평가는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언젠가 LA 한인 교회가 나누어지며 참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을 때의 모습이 눈앞에 겹쳐진다. 저(소득 없는) 싸움에 끼여들지 않아야겠

자리에서 그 판결을 균중하게 넘겼다. 책임에서 발뺌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그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빌라도는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는 그 책임을 떠맡

교회든 문제와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다. 이때에 이것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손을 씻는다고(조용히 그 문제를 떠난다고) 그 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떠나 편안해 진다고 생각할지 모

김지성 칼럼



김지성 목사 글로발선교교회

하와이섬을 방문하는 동안 하와이섬의 마우니케아라는 산 정상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마우니케아산은 해발 4205 미터

이 절정을 이루는 광활한 장관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마우니케아산 정상은 살을 에는 듯 한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다 못해 살을 베는 듯 한 통증을 느끼게 만드는 한기가 머무는 곳이었습니

하와이는 아열대성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시사철 따뜻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일년 내내 얇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습도가 높은 편이라 아주 더울 때는 한증막과도 같은 기후가 엄습하기도 합니다. 무더운 평지에서 얇고 가벼운 옷을 입고 산에 올랐다가 호된 냉기라는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하늘과 닿은 자리, 그래서 하늘위에 무수히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자리...

일상의 삶을 이루어가는 평지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다움이 자리잡은 곳...

그러나 그 자리에는 살을 도려내는 강한 바람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늘과 닿은 그 자리는 온 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곳이었지만, 평지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추위를 맞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는 아무나 설 수 없는 것인 같습니다.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그 가치에 대한 값을 지불하려는 자세를 가진 자만이 설 수 있는 곳임

영광의 자리에 공존하는 도전

의 높이의 화산암으로 구성된 산입니다.

만약 마우니케아산의 높이를 해저로부터 계산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산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산꼭대기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었다는 천문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온통 하얀 구름천지입니다.

구름의 바다를 관통하여 높이 치솟은 산정상과 맞닿은 하늘에는 별과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하얀 보름달이 떠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보기만 해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아름다움

주위를 살펴보니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 모두 남극에서나 입을 듯 한 털외투를 입고, 손에는 두꺼운 장갑들을 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머물렀던 마우니케아산 정상에서 산 아래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맞본 것입니다.

강한 추위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적막한 고요 속에서 차가운 바람소리가 휘익 거리며, 몸을 날릴 듯 한 기세를 펼치고 있는 곳이 바로 마우니케아산 정상이었습니다.

마우니케아산을 내려오면서 깊은 상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치를 위해서는 치려야 할 값이 분명히 있다'는 평범한 원리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을 시샘하는 도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만약 영광의 길에 도사리고 있는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 한다면 영광을 목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연히 우리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공존하는 도전이라는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가치를 위해서는 치려야 할 값'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아야겠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공존하는 도전

확신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였고, 대륙 저 건너편 미국의 한 목사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목사로서 한 가지 확신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두가 이 영광을 보게 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확신은 미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 사람만 있으면 사회가 달라집니다. 역사가 바뀌어 놓습니다. 직장 과 일터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확신에 찬 정치가요 영적 지도자였던 다윗은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들녘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확신은 체험에서 나옵니다. 하나

남성수 칼럼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님은 그의 인생에 늘 목자이셨습니다.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그 어느



Advertisement for L.A. AUTO 정비 (L.A. Auto Repair) featuring a car interior image, a list of services (Smog Check, Brake Service, Tune-Ups, Computer Diagnostic, 전기계통, 30/60/90K Service, A/C Service), contact information (24hr 213.247.6657), and logos for ASE, GM Daewoo, and Smog Check.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이밍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 시내 ■ 장거리 ■ 귀국 ■ 사무실 ■ 창고이전 ■ 포장이사

행복 이사짐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항상 미소를... 항상 정성을... 항상 친절을...
작은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Tel. 323-733-2433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치과 보조사,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3-6개월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여름학기 숙성 학생모집 (락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기공 대학 학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정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크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관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온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켜주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제임스 정 장로
EXECUTIVE DIRECTOR

Tel: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한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SK smart-naephone

- ☑ SK한국전화기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 서울전화번호만 부르세요
- ☑ 분당 2¢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213-435-0608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7일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 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차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 랜드스케이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909-5518

한국 ₩ ↔ 미국 \$

당일 동시 (교액 전문) 소액도 가능합니다
T. 213-388-4989

한국은행 ▶ 미국은행 송금서비스 가능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결혼꽃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중남미, 교회 1개가 경찰서 10개보다 '절실'

미전역 히스패닉교회 목회자들과 중남미 현지 목회자들의 국제 컨퍼런스(IGLESIA EVANGELICA DE JESUCRISTO INC: 대회장 아달베르도 레세스)가 한인교회에서 개최돼 이목을 끌고 있다.

68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규모 중남미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가 한인교회에서 열리게 된 일은 미주 한인교회계에서 최초이며, 장소를 제공한 미주성산교회(담임 방동섭 목사)와 글로벌비전뱅크가 후원기관으로 나섰다. 무엇보다 미주지역에 있는 히스패닉교회들의 모국 선교를 한인교회가 동참하고, 중남미 현지의 목회자들과 교류하고 그들을 교육함으로써 한-히스패닉 커뮤니티의 화해와 협력을 넘어 중남미 선교 확장에 이바지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글로벌비전뱅크 이길소 선교사는 "세계 모든 선교사원을 모으고뱅크화하여 공급하는 선교기구라는 (우리)비전에 따라 이번 컨퍼런스를 통한 한-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연합과 화합, 나아가 중남미 선교에 협력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중남미 선교를 위한 지도자학교 '글로벌 비전스쿨(8개월)'을 대회장이 시무하고 있는 교회(베다니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교단차원에서 결의하고, 이 일에 글로벌비전뱅크가 협력함으로써 히스패닉 차세대 리더 선교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회장 아달베르도 레세스 목사는 "우상을 섬기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된 중남미 지역에는 10개의 경찰서보다 1개의 교회가 더욱 필요하다"며 "한인 교회와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중남미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글로벌비전뱅크의 중남미 디렉터를 겸하고 있는 레세스 목사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한인교회 지도자들과 만나고 돌아왔으며 이를 계기로 중남미 선교를 위한 미주 한-히스패닉교회 연합 사업에 큰 비전을 품고 있다. 아래는 레세스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여기 하나의 잔이 있다고 생각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잔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잔이 될 수도 있다.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그릇의 비유가 나온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그릇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이는가이다. 어디에 사용하는가이다. 특히 가까운 멕시코에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 (나는)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단기선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중남미 선교위해 한-히스패닉 교회 손잡다

-연합 사업에 대한 비전은?

하나님은 언어와 인종 나라에 관계하지 않는 분이시다. 우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비전이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남미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줄 믿는다. 하나님께 그런 기회를 감히 드리고 싶다.

-미주 한인교회들이나 최근 한국방문에서 느낀 점은?

소속돼 있는 교회나 교단을 아주 사랑하는 것을 보았고, 목회자들의 열정적인 자세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

지만 한국 목회자들의 영성은 뛰어난 것 같다. 글로벌비전뱅크의 이길소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한국을 다녀오게 된 것도, 함께 일 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고 큰 비전을 주셨다.

-이번 중남미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는 어떤 대회인가?

1942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단체이며 컨퍼런스이다. '비전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7월 26일~30일까지 미주성산교회에서 개최되고 있다. 비자 문제로 현지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오지는 못했지만 그들과 여기 미주지역

에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의 주요사항은 중남미 지역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며, 교회 세우는 일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이다. 어제 회의를 통해 LA에 있는 15개 교회에서 청년 5명씩 선발해 물품 판매를 시작, 수익금을 선교자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길 수 있도록 목표를 정했다.

-방학과 휴가를 맞아 한인교회들에서 중남미 단기선교를 많이 간다. 어떻게 생각하나?



(오른쪽부터)박인근 관장, 아달베르도 레세스 목사, 방동섭 목사, 이길소 선교사, 표세홍 목사 ©박삼미 기자

요한 것은 어떻게 쓰이는가이다. 어디에 사용하는가이다. 특히 가까운 멕시코에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 (나는)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단기선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부정적인점 때로는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하다보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SI SE PUEDE(할 수 있다!)

(박삼미 기자)

[특별기고] 우리가 손잡고 할일이 무엇일까?

중남미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글로벌비전뱅크(GLOBAL VISION FOUNDATION)가 후원으로 나선 이번 국제컨퍼런스에 800여 명이 등록하여 한-히스패닉 커뮤니티 연합 선교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년의 선교현장에서 라틴민족을 섬긴 경험으로 보면 도움만 바라고 손만 내미는 교회와 교단들은 교회부흥이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면이 있지만 철저한 자신들만의 조직과 힘으로 부흥시키려는 교회와 교단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외국인 선교사의 필요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는 교단을 보았고, 비록 진척은 느리고 힘들어도 낙천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모습에 말 그대로 신선한 충격과 함께 중남미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글로벌비전뱅크 이길소 선교사가 풀어보는 선교전략

하는 존경심마저 가졌던 선교사의 경험이 있다.

여기서 선교지원의 상한선(上限線)을 그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선교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며 '무엇'을 점검해야 하고 '언제' 그 선을 그어야 하는지의 시점과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선교지의 교회와 사람들을 구분별하게 돕는 일은 독이 될 수 있다.

동정심 많은 한국인들이 선교지를 방문하여 한바탕 벌리고 가는 '선교장터'의 뒷수습을 고스란

히 선교사의 몫으로 돌리는 일도 이제 지양해야한다. 단기선교나 선교지 방문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기선교는 선교의 주체인 교회를 위해 필요하다. 누가 만일, "어떻게 바른 선교를 하고, 효과적인 단기선교를 만들까?" 라고 물어 오신다면 선

교지에서 오랜 기간 실수와 실적의 산맥을 오르내린 선교사로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야 나의 찬송일세'라는 회고(回顧/懷古)를 전략차원에서 들려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한국교회 선교의 중복투자(重複投資) 부분이 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안다. 반성해야 할 대목임에 틀림없다. 또 '한국 선교사들은 왜 선교현장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싸우는가'라는 말을 선교대회 때나 분국으로부터 많이 듣는다. 선교의 시작은 주님의 뜻인데 과정과 방법이 사람의 뜻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선교의 끝자락엔 언제나 사탄이 분주히 들락거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중복투자나 선교

현장의 뼈격거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디선가 '내 교회', '내 교단', '내 명에' 같은 '내 울타리'라는 착각과 과욕의 시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넓히라는 하나님의 지경을 안 넓히고, 세우라는 예수님의 교회를 안 세우다보니 나타나 는 기현상이다.

LA에서도 어떤 한인교회들은 큰 건물과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나 다민족들을 위해 개방(봉사)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모습은 안타깝다. 반면에 큰 건물과 주차장을 소유한 한 한인교회는 1층은 한인교회, 2층은 히스패닉계와 몽골인 교회로 나누어 사용하는데, 한인교회에서 한 품의 사용료도 받지 않고 무료제공을 하고 있다. 히스패닉교회 마리오 갈베스 담임목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 큰 건물의 보수나 수리할 일들은 히스패닉교회의 목

수, 미장이 등 건축일 하는 교인들이 맡아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민족사회의 복 있는 사람들(행20:35)이 바로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교회와 한국인 목회자를 좋아하는 히스패닉 형제들과 인격적 관계와 영적교류, 나아가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동역자로 손을 잡으면 그들의 낙천성과, 신나게 일 잘하는 한국인들과의 조화(SI SE PUEDE)가 빛을 발 할 것이다. '고달픈 이민생활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한국인들이 한 하늘 밑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히스패닉 형제들에게 도전을 전해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제 더 겸허한 자세와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다짐을 해 본다. 라틴세계를 하나로 묶는 구호가 있다. 'Si se puede!'/당신은 할 수 있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칼라 전문점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칼라는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SEBASTIAN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LA 최고의 워셔-머리론드 샹기2층 일셔+웨스턴 코너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p> <p>TEL : 562-926-1023, 4691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p>	<p>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p> <p>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p>	 <p>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p>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p>
 <p>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p> <p>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p>	<p>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ional Education College</p> <p>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8월 16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p>	<p>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p> <p>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p>
 <p>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p> <p>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p> <p>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Angeles, CA.90007</p>	<p>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p> <p>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p>	<p>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p> <p>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p>
<p>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p> <p>(장학금을 지급함)</p> <p>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p>	 <p>솔로몬대학교대학원 Solomon University, SU</p> <p>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p> <p>TEL : 213-381-7755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School Code : 94809</p>	<p>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p> <p>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p>
 <p>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p> <p>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p>	<p>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p> <p>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p> <p>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p>	 <p>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p> <p>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p> <p>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p>

알뜰한 우리 영아의 선택!

30일 환불보장

서두르세요! **8월 1일 ~ 8월 15일 가입자에 한함!**

충양일보/충양방송 대역 할부 (www.korabbb.com) [조선시대부터 선진]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4.99/월

우리집 전화비 고민해결!



가격, 품질, 혜택 모두 만족!

- ☑ 미국 전화번호 1개 + 한국 전화번호 1개 제공!
- ☑ 착신 무제한 무료!
- ☑ 초저가 요금으로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이용가능!
미국, 캐나다 2센트/분, 한국 유선전화 2.6센트/분
- ☑ 기존번호 이전 가능! ☑ 각종 부가 서비스 무료 이용!
- ☑ 전세계 아이트코비비 고객간 무료통화!

아이 초리아 넘버를 잡아라!

지금 가입하셔서, 나만의 한국번호로 한국과 무제한 통화하세요!

iTalkBB 사업자 모집

한인 출일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 9시)

■ 로컬/장거리/국제전화 사용이 많으세요?

<p>GLOBAL PLAN 글로벌 플랜</p> <p>\$9.99/월, TAX 포함 * 첫 3개월에 한함 이후 \$24.9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 미국-캐나다 장거리 + 한국포함 27개국 무제한 국제 전화 + ● 마이크로야담버 무료 ● 아이트코비비 무료 ● 개통비(\$29.99) 면제 	<p>GLOBAL PLUS PLAN 글로벌 플러스 플랜</p> <p>\$14.99/월, TAX 포함 * 첫 3개월에 한함 이후 \$34.99/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	---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iTalkBB**
www.Korea.iTalkBB.com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1-800-875-8318 고객지원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트코비비 아이트코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안전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최대** 규모, **최다** 차량 보유,
최신 장비 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 가격 보장"

북미에서 단일 딜러로 가장 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에쿠스 출시를 기념하여 기존 제네시스 리스하신 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제네시스 리스 리턴시 내셔야 하는 **DEPOSITION FEE(\$400)** 을 면제해 드리고, 재 리스시 **한달 할부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8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399/12K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199/3YR STK:031704



2011년도 최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2,999/12K 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99/3YR STK:101312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T.D.O \$2,199/12KMILE)
스포츠 카의 최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59/3YR STK: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1,999/12K 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59/2YR STK:049539



8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2007 BMW 328I WHITE STK:PZ70863 **\$21,8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P018925 **\$28,890**

2005 NISSAN FRONTIER SILVER STK:P461103 **\$10,890**

2008 NISSAN ALTIMA SILVER STK:P226495

2009 TOYOTA SIENNA LE BLUE STK:P277257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9 HONDA ACCORD WHITE STK:P021316A

2007 CHRY TOWN&COUNTRY RED STK:P304471

2005 HONDA PILOT EX BLACK STK:025133BA

2007 HYUNDAI AZERA LTD GRAY STK:P185167

2008 HYUNDAI AZERA LTD SILVER STK:P295894

2009 HYUNDAI ELANTRA SILVER STK:P618846

2008 HYUNDAI ENTOURAGE GRAY STK:P052717

2009 HYUNDAI GENESIS SILVER STK:P031934

2009 HYUNDAI GENESIS WHITE STK:P048693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P586665

2003 MINI COOPER CONV. PURPLE

STK:56884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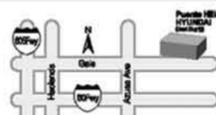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8 NISSAN ALTIMA GRAY STK:P199144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장



저스틴 길



제메인 존슨



지니 안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et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